

광주 격리병원, 병동 통제 강화

계단·엘리베이터 등 일반인 출입 금지 속 추이 촉각 보성 60대 1백여명 접촉... 추가 확산 불안감 증폭

10일 광주·전남에서 첫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 양성 반응자가 나온 광주 A 국가지정격리병원은 조간장 상태에 빠졌다. 병원 의료진들은 특히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기존 의심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해오던 상황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양성 판정이 내려졌던 탓에 패닉 상황에 휩싸였다.

당장, 해당 병원은 양성 반응이 나온 환자가 입원중이던 8층으로 통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일반인 출입을 통제했다. 병원 측은 극심한 긴장감 속에 최종 확진 판정 때까지 향후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지난달 27일 서울삼성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뒤 고열 등 메르스 의심 증세가 나타난 보성 주민 B(64)씨에 대해 지난 8일부터 격리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해왔다.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인 B씨는 그간 증세가 완화되지 않았다가 이날 진행된 2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또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이 진행한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음성 판정을 받았던 탓에 이번 양성 판

정에 대한 당혹감도 역력하게 감지됐다. 입원중인 환자들 사이에서도 양성 판정 여부가 알려지면서 술렁이고 있다.

메르스 환자들이 거쳐간 수도권 대형 병원들의 경우 응급센터 폐쇄, 의료진 격리, 환자 출퇴원 등 날벼락을 맞았던 탓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병원 안팎에서는 A씨가 보성에서 머무르는 기간, 직장 동료(13명), 주민(32명) 등을 만났고 성당에서만 100명이 넘는 동료 신도들과 미사를 본 사실이 전해지면서 추가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A씨의 검체 조사를 질병관리본부에 보내 최종 확진 여부는 11일 새벽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보고 추가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김형호기자 khh@

광주시, 메르스 선별진료소 20곳으로 확대

광주시는 10일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대비해 지역내 발열환자 선별 진료소를 20곳으로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별진료소가 의료기관 내 메르스 감염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기존 5개 의료기관에 마련된 발열환자 선별진료소를 20개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개인보호장비세트와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경표 광주시사회장은 “선별진료소는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해 병원 내원 단계에서부터 발열환자와 일반환자를 원

■ 광주시역 선별진료소	
전남대병원	광주회맹병원
조선대병원	광주일곡병원
상무병원	운암한국병원
광주한국병원	하남성심병원
미래로21병원	첨단종합병원
서광병원	광주보훈병원
동아병원	송정사랑병원
광주기독병원	신가병원
광주현대병원	광주수완병원
광주병원	KS병원

객 모두의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환자 선별기준을 달리 적용해 혼선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메르스 검사 기준과 의심환자 문진표 표준안을 작성해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배포했다.

윤정현 광주시장은 “광주의 운명을 바꿀 광주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광주가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메르스 확산 차단, 이제 성숙한 시민정신 필요

손 잘 씻기·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 지키고 이상 증세 있으면 보건소 조언 듣고 행동해야

메르스(중증호흡기증후군)가 국내에서 확진된 지 20일이 지나면서 메르스 차단을 위해서는 이제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메르스 확산을 끝내려면 무엇보다 신속한 진단과 격리가 최우선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시민정신이 뒷받침되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일 최경환 총리대행의 대국민 당부에는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사용할 것 ▲병문안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갖지 말고 일상적 활동을 해줄 것 ▲메르스 발생지역에 대한 소비기피

등 근거 없는 행동을 자제할 것 ▲본인과 가족, 이웃을 위해 잠복기가 지난 때까지 인내해줄 것 등으로 요약된다.

감염내과와 예방의학과 전문가들은 당초 메르스 치사율을 40%로 예상했으나 현재 10%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들이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메르스는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며, 시민 스스로 메르스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우리들내과 김원영 원장은 “국민도 이

제 메르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생겼다”면서 “열이나 이상 증세가 느껴지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병원 방문 전에 보건소 등에 연락해 조언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영 원장은 또 “격리 조치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서 “개인 위생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만일 병원을 방문했다면 자신의 행적을 자세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형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시민들이 자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단 한명의 양성 확진환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의 의사회,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들이 하나가 돼 메르스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자침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특강...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시스템으로 치유하라’

“불신과 텃세, 조직의 죽음 불러 경쟁력은 존중과 상생에서 나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 지난 9일 광주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 ‘시스템으로 치유하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애플·구글은 플랫폼 네트워크화해 생산성 향상 배려와 나눔·대화와 토론이 조직 창의성 극대화

“최근 대한민국이 메르스 공포에 빠져있다. 메르스 확산, 이는 모두 국가시스템 부재의 탓이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지난 9일 광주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 ‘시스템으로 치유하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경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소장은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기업·국가)조직에 실현하고 인간존중의 연대정신 뿐 아니라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인 애플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플랫폼을 만들고, 모듈화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해 엄청난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이 회사들이 생산성과 창의성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간존중의 경영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삼성이 애플보다 더 많은 핸드폰을 팔고도 이익이 더 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플랫폼이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이러한 ‘인간존중의 연대와 집단지성의 보충’을 위한 올바른 조직의 구조와 설계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올바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신적 플랫폼이 과거 개인의 신분과 계급이었다면 이제 역할과 책임이 더해져야 하며, 조직 설계는 수직구조에서 수평구조로 되어야 한다”면서 “조직 설계의 원칙도 지배와 통제가 아닌 연대와 보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피라미드화된 수직구조에서는 위계질서로 봉건만큼 불신과 갈등, 아침, 텃세, 배신, 왜곡된 커뮤니케

이션 등과 같은 ‘죽음에 이르는 조직의 질병’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네트워크화된 수평구조에서는 계급·직급이 역할과 책임으로 전환돼 분권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존중과 상생, 배려와 나눔, 대화와 토론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이 나올 수 있다”면서 “경쟁력은 협력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우리 사회는 과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철학의 문제”라며 인간 존중의 경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연도尾声을 출신인 최 소장은 성공관대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교보생명 부사장,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겸임 교수, 정보통신부장관 정책자문위원, 한국은행 총재 자문역 등을 역임했다.

또 ‘경영관리의 위기’ ‘인간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경영학’ 등의 저서를 펴내며 경영과 조직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다양한 강연활동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장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당 조합에 최적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개요

- 1) 사업명: 장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2)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171번길 23-1 일원
- 3) 발주처: 장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4) 대지면적: 29,993.78㎡
- 5) 사업방식: 지분제

2. 입찰방법 및 입찰참여자조건

- 1)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2) 현장실명파에 참여할 업체
-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 4) 공동참여(연소사업)가능
- 5)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5억원을 입찰 마감전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

3.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1) 일시: 2015년 6월 19일 오후 3시
- 2) 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171번길 23-1 장미아파트 상가동 301호(조합사무실)
- 3) 저참물: ①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제 제출,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⑤참석자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4. 입찰제안서 제출(우편접수 불가)

- 1) 마감일시: 2015년 7월 10일 오후 5시까지
- 2) 제출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171번길 23-1 장미아파트 상가동 301호(조합사무실)
- 3) 제출서류: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입찰안내서에 의한

5.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458호(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함

6. 기타사항

- 1)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입찰안내서에 의하며, 상기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조합의 결정에 따름
-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여업체는 조합의 선정기준 및 방법, 선정절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서류접수 마감 이후에 서류보완 또는 기재사항 변경은 일체 허용치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한 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업체는 서류 심사 시 탈락 또는 선정을 취소함
- 4)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규정 및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5) 공시이행보증 중서 제출 가능한 업체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 (전화:062)671-4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1일
장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송영숙